

지역 소식통

겨울철 대비 어르신
수제청 나눔 행사

김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병철) 지역사회돌봄분과에서는 17일 겨울철을 맞아 홀로 지내는 어르신과 학대피해노인을 위해 '겨울철 대비 지역 어르신을 위한 수제청 나눔'이라는 주제로 사업이 진행됐다.

이 행사는 지역사회돌봄분과 특화사업으로 김제지역 내 노인맞춤돌봄기관 자원봉사자 10여 명이 모여 수제청을 직접 만들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학대피해노인 등 100가정에 방문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는 시간이 되었다.

수제청 나눔 행사를 통해 김제지역 내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과 학대로 고통당하는 피해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었고 관련하여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과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방법의 안내를 위한 신고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

/김제=곽노태기자



어르신 일상 생활 속
재난안전교육 실시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행복분과는 16일 완주군 관내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전체험을 전라북도119안전체험관에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전라북도119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생활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안전, 지진 등 체험을 통한 상황별 초기 대처 방법 등을 알려드리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요령, 밀집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예방법, 화재 시 행동요령, 소화기 사용방법 등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생물테러 대비 '실전과 같이'

완주군, 경찰·소방·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소규모 훈련 실시

완주군보건소는 17일 완주군가족문화회 가족홀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2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훈련'을 실시했다.

올해 훈련은 코로나19 장기유행으로 인해 중단된 지 3년 만에 실시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하며, 기존의 중복·정형화된 시나리오를 탈피하고 보건 대응요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개편해 효율성을 도모했다.

생물테러는 인명 살상이나 사회 혼란 등을 목적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살포하는 테러로 소량으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완주군은 생물테러 사건 또는 의심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확립해, 신속하고 정확한 합동 대응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하게 됐다.

훈련에는 완주군보건소를 비롯하여 재난안전과, 완주경찰서, 완주소방서, 육군 제9585부대 2대대, 보건환경연구원



완주군보건소는 17일 완주군가족문화회 가족홀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2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훈련'을 실시했다.

원 등 유관기관에서 참석했으며 △생물테러 대비대응 체계 및 초동조치 △개인보호복(Level A, C) 착용 △다중탐지카드 및 검체 이송 실습 순으로 진행됐다.

유미경 완주군보건소장은 "이번 훈련이 생물테러 대비 초동대응기관들

의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생물테러에 선제적으로 대비·대응하고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한 집안서 독립운동가 9명 배출 | 완주서 '일문구의사 추모식'

일제강점기 한 집안에서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것을 기념하는 '일문구의사 추모식'이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오후 완주군 비봉면 비봉공원에서 엄숙하게 진행됐다. (사)일문구의사선양협회가 주최한 이번 추모식은 올해로 11회째다.

이날 행사에는 선양협회 이사장인 유희태 완주군수와 서남용 완주군의 회 의장 최정길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기렸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수에 취임한 후 첫 추모회를 열게 되어 매우 감격스럽고 감회가 새롭다"며 "독립운동가들의 위대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또 "독립운동가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그 후손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정의로운 국가로 가는 첫 걸음"이라며 "나라를 지키신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민경장 기적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앞으로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만들

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일제강점기 한 집안에서 독립운동가 아홉 명을 배출한 가문의 후손으로, 지난 2009년에 발족한 일문구의사 선양협회 이사장을 맡아 그동안 구의사들이 건국훈장 애국·애족장을 수여받는데 큰 역할을 했다.

9명의 의사는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에서 출생한 고희 유씨 가문으로, 유중화, 유태석, 유영석, 유명석, 유준석, 유현석, 유연정, 유연풍, 유연봉 의사를 말한다.

특히 유 군수는 매년 11월 순국선열의 날에 맞춰 추모행사를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 독립정신의 소중함을 계승 발전시키는 일에 앞장서 왔다.

유 군수는 덕분에 지난해 6월에 국가유공자 예우증진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기도 했다.

유 군수는 단체장에 취임한 이후에는 '국립 나라꽃무궁화연구소' 유치에 주력해왔으며, 최근에는 육상의 한산 대첩이다 할 수 있는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화 승격'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는다.

한편 이날 추모사에서 민들레로표과

봉동로타리클럽이 공동주관으로 군지역내 학생 30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 자동차체납부 이용 건수 전년 동기대비 5% 증가

김제시는 11월 현재 자동차체납부 이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월 기준 자동차체로 납부한 건수와 금액은 2만3,451건에 9억4,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5%, 금액은 7% 증가 폭을 나타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방식은 이체계좌에서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납부처리가 되어 납기 마감일에 복잡한 은행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납기일이 경과되어 가산금이 부과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동차 납부 신청 시 건당 5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이고지서가 아닌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고지 신청 시에는 500원의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17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관내 이·통장과 초청인사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김제시 이·통장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신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김제시 이·통장 한마음대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7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관내 이·통장과 초청인사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김제시 이·통장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제시 이·통장 연합회(회장 양관용)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한 이원택 국회의원, 김명자 김제시의회 의장 관내 사회·단체장 등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통장 한마음대회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직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주민회합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범 이·통장 19명에 대한 표창, 장기지량, 축기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양관용 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올해도 아낌없이 봉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통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만큼은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통장은 지역리더로서 시장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다. 이·통장들의 단합된 힘과 지혜로 뜻을 모아주시고 시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아이돌보미 꼭 필요... 점차 중요해져"

완주군가족센터, 아이돌보미 55명 대상 하반기 집담회

아동학대 예방교육 · 활동시 유의사항 · 민원 등 공유

완주군가족센터(센터장 김정은)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11월 15일/16일 2회에 걸쳐 완주지역자활센터 해피트 리브레드 2층 체험교육장에서 아이돌보미 55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담회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활동시 유의사항, 모니터링 내용, 이용자 민원 등을 공유해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서비스 제공 시 효율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사업발전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고 나란을 위한 달콤 케이크를 만들면서 소진예상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집담회에 참여한 아이돌보미는 "이용자의 신뢰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불분명해 보고 등 소통을 꾸준히 해야겠다. 그리고 평소 잘 만들 수 없는 케이크를 만들면서 즐거운 마음이 들었고 다시금 일할 수 있는 에너지 충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정은 센터장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정책으로 만들어졌다. 이용자께 돌보미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돌보미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돌보미 선생님들의 역량과 위치는 강화될 것이다. 앞으로도 돌보미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행복한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이용자 가정에 찾아가 1: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063-262-03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중복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